

F o r m a F o r e s t

라시숲

자/원/조/사

삼다수 숲길
포리수의 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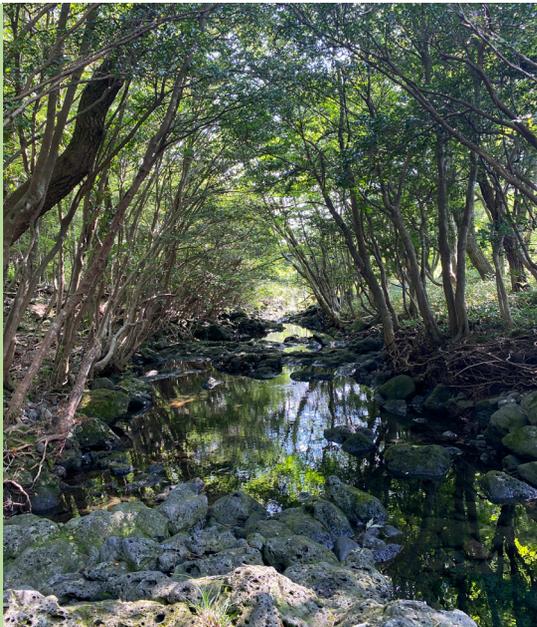
23.
08

기후위기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시시각각 변해가는
제주의 오름, 돌레길, 하천숲을 기록합니다.



(사)제주환경교육센터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 of Jeju

삼다수 숲길 포리수의 여름



2023년의 여름은 유난히 많은 비가 내렸다.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긴장감이 감돌았으나 육지부와 달리 태풍이 왔었나 할 정도로 조용히 제주를 지나가면서 오늘의 시간은 숨이 턱 막히는 폭염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한다.

2023년을 기억하게 할 또 다른 프로젝트는 제주의 숲이 가지는 다양성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진행되는 '다시 숲' 자원 조사이다.

개발사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환경 변화로 인해 시시각각 변해가는 제주의 오름, 둘레길, 하천 숲길의 현재를 기록하기 위해 제주환경운동연합 숲해설가 10명이 모였다.

삼의약 둘레길, 켓물오름 잣성길, 서중천 하천 숲길, 삼다수 숲길 자원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계속되는 비날씨로 8월이 돼서야 2번째 자원 조사를 진행한 곳이 삼다수 숲길 포리수이다. 삼다수 숲길은 지역주민들이 오가던 임도를 정비해 만든 탐방로이다. 원래 이 지역은 말 방목터이자 사냥터였는데 1970년 심은 삼나무들이 30m 남짓한 거목으로 자라면서 빼곡한 숲길을 이루었다.

우리는 삼다수 숲길보다는 하천 숲길을 선택하였다. 이곳은 교래리가 상수도가 공급되기 전인 60년대까지 마을 주민들이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로 이용하던 곳으로 세 곳의 봉천수 중 포리수(파란물)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곳이다. 천미천의 상류에 해당하는 포리수는 수 년전까지만 해도 그냥 마실 수 있는 음용수였지만 지금은 소금쟁이가 살고 있는 2~3급수로 수질이 악화되었다. 물은 환경의 변화로 예전처럼 맑지는 않지만 하천 양안의 숲은 여전히 끈질긴 제주의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제주의 하천은 산지천, 외도천, 강정천, 솜반천 등의 8개의 유류 하천을 제외하면 연중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이다. 화산섬 제주의 강은 지하로 흐르기 때문이다. 제주시 방향의 북쪽과 서귀포시 방향인 남쪽이 가파르고 짧은 반면 동쪽과 서쪽은 완만하면서도 길기 때문에 한라산에 많은 비가 내리면 가파른 북쪽

과 남쪽으로 빗물이 모여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물길이 만든 하천길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긴 녹색띠의 형태를 보여주는데 그 녹색 띠가 제주의 혈관인 하천 숲길이다.

단절되지 않은 제주의 생태축인 하천변 숲길은 하천의 소를 찾아온 야생동물들의 집이자 해안에서 한라산 꼭대기까지의 다양한 기후대에 맞추어서 형성되는 생물종다양성의 보고이다.

하천을 따라 형성되는 숲은 어떤 모습일까?

포리수 하천 숲길 초 앞에 제주에서 자생하는 붓순나무가 여럿이 살고 있다. 새싹이 돌아나는 모양이 붓처럼 생긴 붓순나무는 제주에서는 '팔각냥'이라 불린다. 비교적 따듯한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제주와 남해안 일대가 북방한계라 할 수 있다. 한창 꽃이 피는 3월이면 은은한 향기와 훅날리는 하얀 꽃잎이 인상적인 나무이다. 삼다수 숲길에 붓순나무 군락지가 있는데 아마도 하천을 따라 씨앗이 이동했기 때문일 것이다.



수피에 가시가 일정하게 나 있는 특이한 나무가 보여 길잡이 '상제나무' 선생님께 여쭙보니, '보민 모르 크냐~ 두릅 아니냐~' 핀잔을 들었다.

내가 항상 보던 두릅이 이런 큰 거목이 아니니 빈곤한 나의 상상력은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보다. 하천 깊숙한 곳에 자라서 이만큼이나 클 수 있었구나 싶은 생각에 '이만큼 자라느라 너도 참 애썼다' 싶다.

여름 숲의 선명한 녹색과 물이 만나는 포리수 하천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내치는 하천을 온 몸으로 견뎌내는 나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제주의 나무들은 대부분 돌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면 흙 한 줌 없는 하천에서의 삶은 더욱 가혹하다.



솔비나무에서 자라는 시루송편버섯, 삼색도장버섯, 잔나비걸상 등 각양각색의 버섯들이 가득하다.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르면 나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 척박한 제주의 땅을 비옥하게 할 것이다.

그대로 뿌리를 드러낸 때죽나무 한그루가 눈길을 끈다..

때죽나무는 외부의 영향에도 끊임없이 스스로를 치유하여 맹아가 발달하는 나무이다. 거친 하천의 물길로 인한 생채기를 치유하기 위해 형성층을 끊임없이 부풀리고 있는 모습은 마치 문어의 빨판을 연상시킨다..

그렇지 '살암시민 살아지는 거니까'

곳곳에 부러지고 뿌리를 드러낸 나무가 많을수록 하천 숲길에서 잘 자라는 것이 버섯이다. 쓰러진 때죽나무에 층층치마를 입을 때죽조개껍질버섯이 자라고 있다. 버섯을 볼 때는 꼭 뒷면을 같이 보라고 한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뒤집어본 뒷면은 마치 복잡한 미로를 연상시킨다. 쓰러진 하천 변 나무에는



유난히 열매가 가득한 산딸나무를 만났다. 열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돌기처럼 돌아있는 열매 모양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슷하다는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무이다. 한창 나무들이 꽃을 피우는 봄이 오면 멀리서도 층층이 하얀 총포를 드러낸 산딸나무는 애매함이 없다. 꽃처럼 보이는 하얀 네 개의 꽃차례 받침은 그 자체가 '나는 산딸나무야'라는 확실한 이름표처럼 보인다. 그래서

나의 최애 나무 중에 하나가 되었다. 어떤 나무인지 생각할 필요도 없으니 얼마나 깔끔한가!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닌 듯하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그러는지 알 수 없는 사람보다 그저 보이는 것이 그 사람 자체라면 가뜰이나 복잡한 세상 그렇게 많은 생각과 고민, 또는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물길을 따라 나무를 따라 걷다 갑자기 발을 멈춘다.

비온뒤 몸을 말리러 나온 쇠살모사가 우리 앞에 허를 났름거리며 또아리를 틀고 있다. 잊고 있었다. 하천 숲자원조사에서는 매번 뱀들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물이 있는 곳에 바로 그들이 있다.

휴식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고 돌아서 다시 걸어가다 보니 살포시 내려앉은 먹그늘 나비가 놀란 마음을 진정시켜 준다. 숲에 가면 먼저 꽃과 나무가 눈에 보이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물이 보이고 더 가까이 가면 곤충이 보인다. 만약 사람이 많이 보인다면 더 보태지 말고 다시 나오면 된다.

하천 숲길을 걷는 또다른 볼거리 중에 하나는 바로 각양각색의 돌들이다. 무심코 들여다 보면 그저

하나의 돌일 뿐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아차의 얼굴이 있다. 돌에 물이 조금 고여 있는 것에 불과하지만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트모양이 반짝인다. 내 마음이 보고자 하는 것만큼 보인다고 할까? 하나의 작품과도 같은 하천의 각양각색의 돌무더기는 제주의 물길이 오랜시간 공들여서 만든 하나하나의 석부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하천을 가면 물명을 하게 되는가 보다. 그래서 결국 매일 발을 헛딛는 것일 지도 모르겠다.



하천 숲길을 더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 코를 찌르는 향기가 끊임없이 이어져 하천가에 가득하다. 8월 중순이라 꽃을 별로 볼 수 없었는데 고약한 향기로 유명한 누리장 나무에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 앞

에서는 원기소 비슷한 고약한 냄새가 꽃에서는 향기로운 꽃향기가 나는 요물 같은 녀석이다.

누리장나무를 보면 5번 놀란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그 이름 때문이요. 두 번째는 나무에서 풍기는 고약한 냄새이며 꽃과 열매의 아름다움에 세 번째 놀라고, 어린잎을 데쳐 먹었을 때의 고소한 나물 맛에 네 번 놀라게 되며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약재의 효능에 놀란다고 한다. 역시 요물은 요물이다. 나무마다 향기든 꽃이든 열매든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자연이 신비로운 것이지만 누리장에게 5가지 놀라움을 붙여준 이유는 아마도 이름에서 오는 편견과 의외성을 보여주기 위함일 것이다. 세상에 이유 없이 피는 꽃은 없으니까

지독히 더운 여름 포리수 하천 오늘의 주인공은 이 누리장 나무가 되겠다.



제주 사람들은 제주에 가면 어디를 가면 좋겠냐는 질문을 한번은 받아보게 된다. 제주의 용암숲인 곳자왈과 360여개의 오름과 둘레길도 좋고 제주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올레길도 좋다. 나를 다잡고 무엇가를 다짐하고 싶다면 한라산을 올라도 좋지만 폭 쉬고 싶다면 해안선을 따라 달리다 예쁜 카페에 앉아 쉬어도 좋다.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날 것 그대로의 제주의 속살을 보고 싶다면 하천 숲길을 따라 트래킹해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다. 지면에 다 담지 못한 포리수 숲길의 작은 풀꽃들, 나무들, 돌들, 곤충들은 올해 말 '다시 숲' 자원 조사 최종 보고서에 담길 예정이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게 되고 느끼는 만큼 사랑하게 되니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면 된다.

 (사)제주환경교육센터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 of Jeju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92(3층)

홈페이지 <http://www.edujeju.org>

이 메 일 edujeju@kfem.or.kr

연 락 처 Tel. 064-759-2164 Fax. 064-759-2169